

新井 邦二郎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아동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자기결정에 대한 의식(사고)과 결정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양국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자국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향후의 관련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의 초, 중학생 452명과 일본의 초, 중학생 438명 및 조사대상 학생들의 보호자였다. 분석의 결과, (1)일본이 한국보다 자기결정에 관한 의식이 학생자신과 보호자에 있어 더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결정 행동을 많이 하며, 보호자 또한 여학생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더 자기결정행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보호자의 사고가 초등학교 4학년 보다 퇴보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가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주었다.

주요어: 아동, 자기결정, 한국, 일본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란 「어떤 활동을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며,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자기결정과 자율성이 중요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에 대한 동기화의 문맥에서 이루어져 왔다. 학습을 일으킨 동기가 내재적인 경우 외적 보상이나 제약은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deCharms, 1968, 1976, 1984; Deci, 1975, 1980; Deci & Ryan 1985; 山地, 1988), 내재적 동기

는 개인의 자기결정성이나 자율적 판단으로 나타난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외재적 동기는 보상이나 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며 자기결정성의 부재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Ryan & Connell, 1989). 한국에서는 김아영·오순애(2001)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능동적 대처는 내

재적 원인과 상관이 높고, 부적응적 대처는 외적 원인과 상관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조현철(2000)은 학습에 있어서의 동기가 자기 결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학업 결과와 학업 수행의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종태 등(2002)에 의하면 상위권 20%의 학생들의 학습스타일 중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때까지 반복해서 노력하는 ‘자기주도성’과 끈기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과 자율성을 기르지 못한 채 성장한 사람은 지식의 창출과 공유와 활용의 복잡화가 필요한 21세기에서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결정은 학습이나 노동을 능력과 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QOL)의 유지나 향상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인간이 자기선택을 하고 자기결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은 인간의 본성이며 최상의 심리적 건강상태이다. 자기선택 또는 자기결정이 중심개념이 되는 자율성은 학습된 무조건적 순종에서 자유로운 상태이며, 자기결정을 저해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Berne, 1964; Deci, 1980).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자 발달의 과정에서 획득해야할 과제인 자율성은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과도기를 맞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아동기까지 중요한 타인에 의해 규정된 불변적이며 연속적 자아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하며, 자신이 완수해야 할 역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아 재

정의를 시도한다 (Erikson, 1950).

新井 등(1998)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결정은 책임감과 학습과도 중요한 관련을 가지며, 아동은 어른과의 상호교섭을 포함하여 자기결정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사회를 배워게 되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자아정체감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결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해 알 기회도 적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시험해 볼 기회도 적어지므로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긋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청소년은 현실적인 외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자기 역할에 대한 검토과정 혹은 자아 재 정의가 타의적으로 연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아확립시기의 지연은 청소년기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란,2003; 稻村,1991).

최근의 청소년들이 나약하며,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책임이 동반되는 결정을 기피하는 모습에 대해서「마마보이」나「마마걸」,「피터팬 신드롬」등과 같은 유행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新井 등(1998)은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발달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일본에서는 3무주의(무기력, 무감동, 무책임)가 만연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무관심과 무목표를 첨가한 5무주의라는 용어도 출현하고 있으며, 「로봇인간(부모의 명령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함으로써 의욕이나 감정, 감동이나 삶의 보람 또는 목표나 책임감을 포기한 인간)」 또는「지시대기族」이라는 신조어도 나타나, 현대

의 아동과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였다.

한국사회는 1970년대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한 후, 1980년대 말 학력경쟁이 가열되고,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 한국에서 심각한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괴롭힘(왕따), 교실붕괴, 원조교제, 청소년의 중도퇴학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현상은, 그 발생시기가 10년에서 5년 정도의 차이를 두면서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동양문화권이면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비슷한 교육적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에서 현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결정발달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이처럼 자기결정 발달지체를 일으키는 이유로서 新井 등(1998)은 보호자의 과보호와 과잉 간섭적인 양육태도와 학교 관료주의를 들었다. 즉 자녀수가 하나나 둘인 시대가 되면서 가정에서는 아동의 행동 하나 하나, 예를 들면 아동의 주요 일상인 학교생활, 공부, 친구, 학원, 기본생활의 일상에 대해 부모의 지배적인 태도가 늘어나고 아동은 자연스럽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佐藤 등(1996)은 자기결정의 발달에 있어서 자기결정 경험을 일상생활 속에서 쌓아감으로써 자기결정에 대한 자신감과 의식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의식이 부모나 연장자로부터 독립이나 자기결정행동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면서, 학업 및 일상생활에서의 결정에 대해 ‘아동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 할 문제라고 생

각하는지, 부모가 판단해서 결정 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현대는 부모의 지배적인 태도가 증가하기 쉬운 조건이며,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일상인 ‘학업과 일상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경험이 부족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있다. 자기결정경험의 부족은 자기결정에 대한 자신감 및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고(의식)를 키우기 어려우며, 자기결정 해야한다는 사고의 부족은 자기결정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부모의 사고와 자녀자신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결정행동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결정을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사고)와 자기결정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학생의 기결정의 발달에 대한 양상을 검토하고,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보호자의 사고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자기결정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결정에 대한 자녀 자신의 사고 및 보호자의 사고가 자녀의 자기결정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학생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학생의 자기

결정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3) 한국과 일본의 초·중학교 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4) 자기결정에 대한 학생자신의 사고와 자기결정행동과는 관련성이 있는가?
- (5)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와 초·중학교 학생의 자기결정행동과는 관련성이 있는가?

## 피험자

연구대상은 일본 동경도내의 공립초등학교 4학년생112명(남자 48명, 여자 64명), 초등학교 6학년생133명(남자 72명 여자 61명), 중학교 2학년생 193명(남자 104명 여자 89명) 및 조사대상 학생들의 보호자와 한국 서울시내의 공립초등학교 4학년생129명(남자 66명 여자 63명), 초등학교 6학년생 95명(남자 50명 여자 45명), 대구시내의 중학교 2학년생 128명(남자 63명 여자 65명) 및 조사대상 학생들의 보호자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은 수업시간에 학급단위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실시 시간은 약25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보호자에 대한 설문은 학생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귀가하여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고 다음날 회수하였다.

## 도구

### (1) 자기결정 행동 검사

본 연구의 자기결정행동 검사는 谷島, 新

井, 松尾, 天貝, 佐藤, 崔(1996)가 제작한 13문항을 사용하였다(표 1).이 검사문항의 수집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학생들이 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장면에 대해 중등교사2명, 심리학전공의 대학원생3명, 심리학과 교수2명이 장면을 상정한 후, 일본의 보호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하여 13항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생활환경이나 하루의 일과가 일본의 경우와 크게 상이하지 않으므로 이 장면에 대해 한국의 중학교 교원3명과 대학원생 1명의 검토를 거쳐 13항목을 모두 채택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 1. 자기결정행동의 문항

내 용
아침에는 스스로 일어난다.
아침에 옷, 양말은 스스로 골라서 신는다.
스스로 집안 일을 돕는다.
옷을 스스로 골라서 산다.
친한 친구를 스스로 골라서 사귄다.
집에서의 공부시작은 스스로 정한다.
집에서의 공부내용은 스스로 정한다.
집에서의 공부시간은 스스로 정한다.
용돈이나 세뱃돈의 사용은 스스로 정한다.
학원이나 과외는 스스로 판단하여 다닌다.
잠자는 것을 스스로 정한다.
책상주변의 정리는 스스로 한다.
학급임원은 스스로 신청하여 행한다

아동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항상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에서「항상 스스로 결정한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각각 1점에서 4점으로 득점화하여, 아동의 행동에 있어 자기결정에 많을수록 득점이 높아지도록 했다. 이 척도의 계수는 .74로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으며, 石川・藤原(1968)의

아동의 자주성진단검사(DTI; Diagnostic Test of Independence)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공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표 2).

표 2. 자기결정과 자주성과의 상관관계

자주성									
자발	주제	독립	주장	판단	독창	자율	통제	책임	역할
.37**	.16**	.02**	.13**	.16**	.29**	.39**	.25**	.38**	.35**

\*\*  $p < .01$

## (2) 자기결정 사고 검사

본 연구의 자기결정 사고 검사는 新井(1998)가 작성한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표 3), 질문지의 문항은 아동용과 보호자용의 2종류가 작성되었다. 문항의 선정은 ‘자기결정행동 검사’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 문항을 한국의 교원과 대학원생이 검토하여 사용하였다.

표 3. 자기결정사고 문항

하위척도명	내 용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 태도 및 소비의 선택	집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집에서 어떤 내용의 공부를 하는가?
	집에서 몇 시간 공부하는가?
	아침 일어날 것인가 더 잘 것인가?
	어떤 옷을 사서 입을가? 용돈이나 세뱃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어떤 부활동, 클럽활동을 하는가?
	과외나 학원에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장래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친구와 놀거나 사이 좋게 지낼 것인가?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등교 할 것인가?
	고등학교에 진학 할 것인가?
	어떤 머리모양을 할 것인가?
	집안 일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컴퓨터게임, 전자게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주로 학업 및 가정생활 중에서 아동의 16가지 자기결정행동에 찬성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를 들면 아동용질문지의 경우 ‘당신은 다음의 행동에 대해 당신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어느 정도 찬성하는지를 판단하여 맞는 번호에 체크하십시오’라는 지시문에 대해,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득점화 할 때는 「매우 반대」에서 「매우 찬성」까지를 각각 1점에서 4점으로 하여 아동의 행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클수록 득점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질문지 하위척도의 I-T상관과 계수를 구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표 4).

표 4. 하위척도의 I-T상관과 계수

		I-T상관치	계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자 녀	.38~.57	.74
	보 호 자	.35~.65	.75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자 녀	.44~.52	.72
	보 호 자	.40~.51	.71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자 녀	.40~.56	.72
	보 호 자	.32~.57	.68

## 자료처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첫째, 아동이 갖는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및 자신의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에 대한 차이를 국가별(한·일), 발달단계별, 성별로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후검증에는 LSD검증을 사

용하였다. 둘째,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에 있어서 사고와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와 자녀의 자기결정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Release 4.0 for Macintosh를 사용하였다.

# 1.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의사 전체 및 하위척도의 차이를 학년과 성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한·일)×학년×성의 3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에서 그림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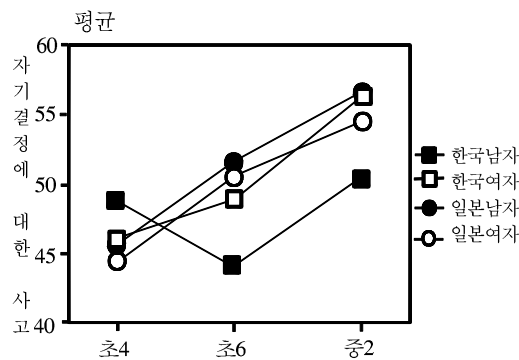


그림 1.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또한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사고 점수에 대한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를 표 5에 제시하였다.

(1) 자기결정에 대한 의사 전체에 대한 분석의 결과(그림 1), 2차 상호작용이 유의미했

다( $F(2,463)=5.69, p<.05$ ).

이에 성별로 국가와 학년의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336)=12.37, p<.001$ ). 단순 주 효과 검정의 결과, 국가별로 보면, 한국남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생이나 중학교2학년생과 비교해서 자기결정에 약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F(2,145)=6.33, p<.05$ ), 일본 남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결정에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91=28.82, p<.001$ ).

한편 여학생에 있어서도 국가와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323)=2.45, p<.1$ ). 단순 주효과 검증의 결과, 한국의 경우 중학교 2학년생이 초등학생보다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가 강하게 나타나고( $2,151$ )  $30.687, p<.001$ ),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보다 6학년이 강하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생보다 중학생이 강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72=21.83,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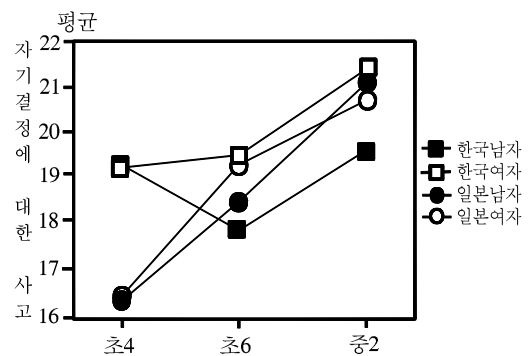


그림 2. 한일 아동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2) 하위척도<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분석의 결과(그림2), 2차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2,659)=3.78, p < .05$ ).

성별로 국가와 학년의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336)=13.56, p < .001$ ).

단순 주 효과검증의 결과, 한국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생 및 중학교 2학년생에 비해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찬성도가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 $F(2,145)=3.18, p < .05$ ), 일본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아졌다( $F(2,191)=31.57, p < .05$ ).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생은 한국남학생이 일본 남학생보다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찬성도가 높으나( $F(1,99)=16.67, p < .001$ ), 중학교2학년생은 일본 남학생이 한국 남학생보다 찬성도가 높게 나

타났다( $F(1,139)=9.52, p < .01$ ).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국가와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323)=5.78, p < .01$ ). 단순 주 효과 검증의 결과, 한국여학생의 경우 중학교 2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생과 6학년생보다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 $F(2,151)=10.88, p < .001$ ), 일본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아졌다( $F(2,172)=30.05, p < .001$ ).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생은 한국여학생이 일본여학생보다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으나( $F(1,105)=22.66, p < .001$ )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3) 하위척도<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분석의 결과(그림 3), 2차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2,659)=3.74, p < .05$ ).

성별로 국가와 학년의 단순상호작용을 분

표 5. 자기결정사고에 대한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

	한국						일본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고 전체	48.47 (7.64)	46.31 (7.12)	44.59 (8.07)	48.21 (7.10)	50.32 (7.65)	55.94 (6.62)	45.18 (8.59)	44.38 (8.82)	51.10 (7.61)	50.45 (7.26)	55.70 (7.13)	54.02 (7.84)
F1	19.26 (2.90)	19.22 (3.05)	17.97 (3.69)	19.36 (3.45)	19.57 (2.97)	21.50 (2.22)	16.31 (4.33)	16.34 (3.21)	18.48 (3.55)	19.21 (3.04)	21.11 (2.76)	20.63 (2.90)
F2	16.96 (2.55)	16.10 (2.64)	15.47 (3.37)	16.07 (2.86)	16.85 (2.34)	18.33 (2.20)	15.59 (3.39)	15.50 (3.22)	17.94 (2.71)	17.33 (2.34)	18.31 (2.03)	17.91 (2.49)
F3	12.24 (4.14)	10.98 (3.49)	11.14 (3.52)	12.76 (3.34)	13.89 (3.80)	16.10 (3.19)	13.27 (3.43)	12.54 (4.10)	14.67 (3.32)	13.90 (3.13)	16.27 (3.30)	15.47 (3.36)

주 F1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F2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F3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336)=13.95, p<.001$ ). 단순 주 효과검증의 결과, 한국 남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 과 중학교 2학년 생 보다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찬성도가 낮았고( $F(2,145)=4.13, p<.05$ ), 일본 남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해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이 자신의 선호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해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F(2,191)=17.10,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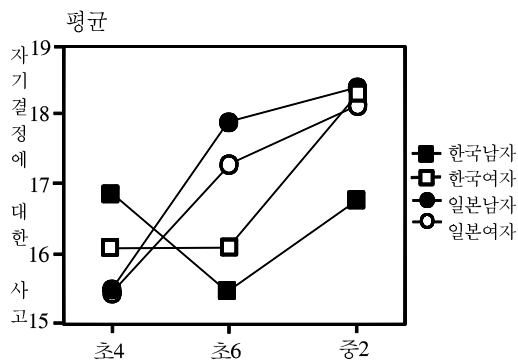


그림 3. 한일 아동의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생에 있어서 한국 남학생이 일본 남학생보다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찬성도가 높으나( $F(1,99)=5.39, p<.05$ ) 초등학교 6학년생( $F(1,98)=16.44, p<.001$ )과 중학교 2학년생( $F(1,139)=14.71, p<.001$ )은 일본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는 국가와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323)=3.62, p<.05$ )

단순 주 효과검증의 결과, 한국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생보다 자기결정의 찬

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F(2,151)=14.16, p<.001$ ), 일본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F(2,172)=12.47, p<.001$ ).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생에 있어서 일본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F(1,87)=5.15, p<.05$ ).

(4) 하위척도<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분석의 결과(그림 4), 2차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2,659)=3.92,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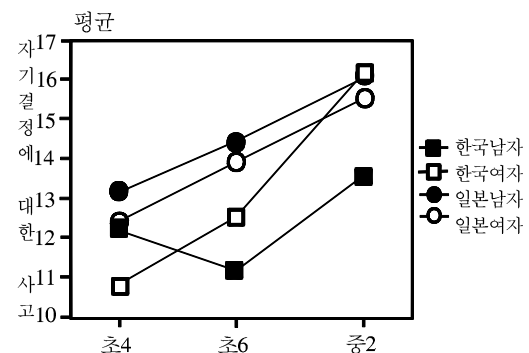


그림 4. 한일 아동의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성별로 국가와 학년의 단순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상호작용이 유의경향을 보였다( $F(2,336)=3.02, p<.1$ ).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 한국 남학생은 중학교 2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생과 6학년생보다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F(2,145)=5.91, p<.01$ ), 일본 남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F(2,191)=12.72, p<.001$ ).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생과 6학년 생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학교 2학년



생은 일본 남학생이 한국 남학생보다 가정의 규칙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F(1,139)=14.84, p<.001$ ).

한편 여자의 경우 국가와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2,323)=3.37, p<.05$ ). 단순 주효과검증의 결과 한국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가정의 규칙에 대한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아지고( $F(2,151)=34.86, p<.001$ ), 일본 여학생은 중학교2학년생이 초등학교 4학년 및 6학년생보다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았다( $F(2,172)=10.50, p<.001$ ).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생에 있어서 일본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보다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았다( $F(1,105)=4.49, p<.05$ ).

## 2.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행동

한국과 일본의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의 차이를 학년과 성별로 검토하기 위해서 국가×학년×성의 3원 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5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행동 점수에 대한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유의미한 2차 및 1차의 상호작용이 없었으며, 국가의 주효과도 없었다. 학년( $F(2,463)=11.47, p<.001$ )과 성( $F(1,463)=16.09, p<.001$ )의 주 효과가 나타났는데 LSD

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결정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63)=11.47, p<.001$ ).

또한 성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F(1,463)=16.09,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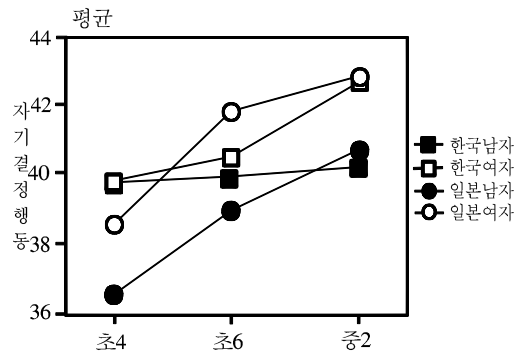


그림 5.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행동

## 3.

### 의 사고

한국과 일본의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의 각 하위척도와 척도전체의 차이를 학생과 성별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학년×성의 3원 변량분석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6에서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또한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사고 점수의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

표 6.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의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

	한국						일본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행동	39.49 (5.53)	39.84 (5.24)	39.91 (6.07)	41.19 (5.32)	40.09 (5.13)	42.55 (5.61)	36.43 (5.32)	38.55 (5.23)	38.91 (5.62)	41.97 (5.51)	40.06 (5.13)	42.71 (5.53)

를 표 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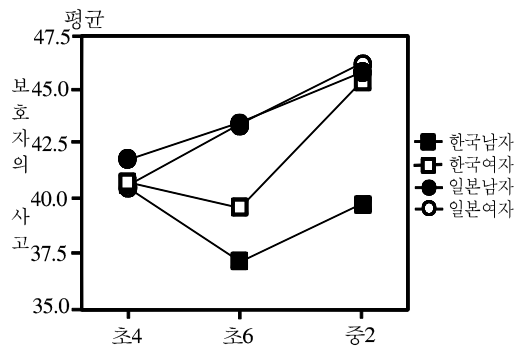


그림 6.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1) 아동의 자기결정척도전체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와 학년의 단순상호작용이 유의경향이 나타났으며(그림 6)( $F(2,463)=2.60, p<.1$ ), 국가와 성의 단순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463)=4.02, p<.05$ ).

먼저, 국가와 학년의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보호자는 중학교 2

학년생의 보호자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145)=4.67, p<.05$ ), 일본의 경우는 중학교 2학년생의 보호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49)=4.32,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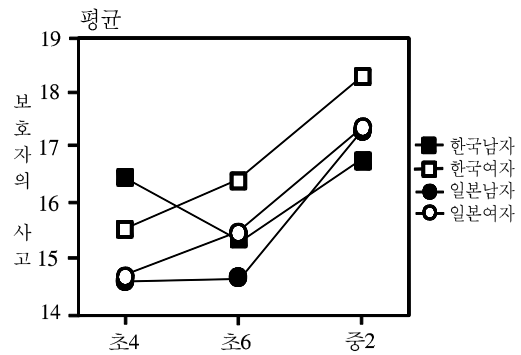


그림 7. 한일 아동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표 7.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 사고의 학년별, 성별 평균(표준편차)

	한국						일본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고 전체	40.64 (7.09)	41.32 (6.42)	37.31 (6.89)	39.41 (7.01)	39.91 (7.31)	45.13 (7.96)	42.24 (7.78)	41.39 (7.41)	43.26 (6.41)	43.17 (7.38)	45.25 (6.31)	46.00 (7.09)
F1	16.46 (2.91)	15.79 (2.13)	15.43 (2.84)	16.23 (2.65)	16.96 (2.48)	18.30 (2.93)	14.61 (2.83)	14.80 (2.31)	14.65 (2.44)	15.40 (2.30)	17.05 (2.56)	17.31 (2.49)
F2	13.76 (2.85)	14.11 (3.11)	12.88 (2.32)	13.15 (2.48)	13.49 (2.80)	14.30 (2.92)	16.34 (2.85)	15.56 (2.37)	16.38 (2.73)	16.44 (2.54)	17.03 (2.34)	16.90 (2.41)
F3	10.04 (2.23)	10.86 (2.11)	9.38 (2.04)	10.05 (2.09)	10.23 (2.47)	11.58 (2.43)	11.44 (2.43)	11.73 (2.45)	11.35 (2.12)	11.51 (2.21)	11.70 (2.65)	11.87 (2.56)

주: F1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F2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F3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2학년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으며,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는 일본의 보호자가 한국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7.12, p<.01$ ).

한편, 국가와 성의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는 여학생의 보호자가 남학생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1,294=20.98, p<.001$ )과 여학생( $1,298=7.60, p<.01$ ) 모두에 있어서 일본의 보호자가 한국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하위척도<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그림 7), 국가( $F(1,581)=9.64, p<.01$ )와 학년( $F(2,581)=23.61, p<.001$ )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LSD에 의한 사후검증의 결과, 중학교 2학년생의 보호자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생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592)=22.71, p<.001$ ). 국가별로 보면, 한국의 보호자가 일본의 보호자보다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그림 8), 국가와 학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581)=3.34, p<.05$ ), 국가와 성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다( $F(1,581)=3.12, p<.1$ ).

먼저 국가와 학년의 단순주효과 분석의 결과, 국가별로 일본의 경우 중학교 2학년생의

보호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303)=4.60, p<.05$ ). 또한 학년별로는 전 학년에 걸쳐 일본의 보호자가 한국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선호에 대한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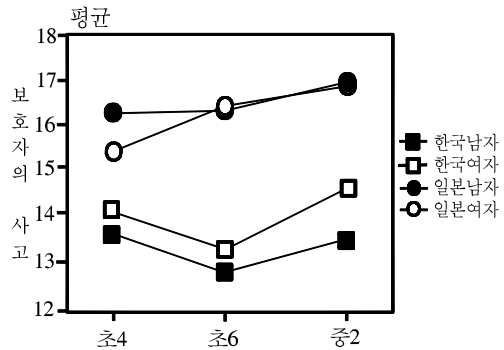


그림 8. 한일 아동의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국가와 성의 단순 주 효과 분석의 결과, 남학생의 보호자와 여학생의 보호자 양쪽 다 일본 보호자가 한국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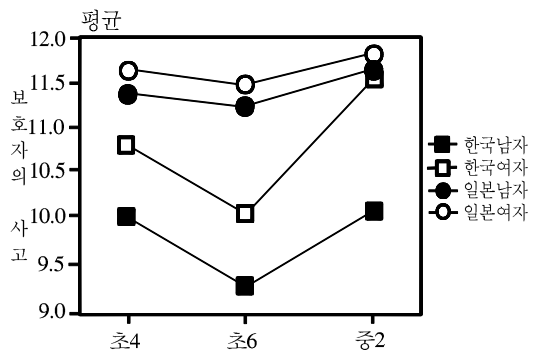


그림 9. 한일 아동의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4) 하위척도<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그림 9), 국가( $F(1,581)=22.51, p<.001$ )와 성( $F(1,581)=2.51, p<.05$ )에 있어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본 보호자가 한국 보호자 보다 아동의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에 찬성하며, 여학생의 보호자가 남학생의 보호자 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 와 자기결정행동과의 관련

한국과 일본의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행동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자기결정 사고와 자기결정 행동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표 8).

(1)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생의 남자의 경우,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전체( $r=.33, p<.05$ ),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사고( $r=.39, p<.01$ ),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사고( $r=.26,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남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하위척도에서는 학습 및 생활행동 부분과 자신의 선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남학생이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사고( $r=.29,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보이며,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학생이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의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경우,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사고( $r=.35,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학생이 자기결정

표 8.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자기결정행동의 상관계수

	한국						일본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고전체	.33*	.25	.09	.15	.40**	.26*	.25	.06	.02	.17	-.03	.05
F1	.39**	.29*	.38*	.20	.52***	.19	.35*	.00	.01	.21	.08	.12
F2	.26*	.11	-.05	.27	.29*	.21	.08	.08	.15	.25	-.01	.12
F3	.17	.17	-.14	-.12	.22	.26*	.09	.08	-.09	.00	-.13	-.07

주: F1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F2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F3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 $p<.05$ , \*\* $p<.01$ , \*\*\* $p<.001$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과 자기결정행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 $r=.38, p<.05$ ),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찬성도가 높은 남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의 경우는 남녀모두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볼 수 없었다.

(3) 한국의 중학교 2학년생에서 남학생의 경우,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전체( $r=.40, p<.01$ ),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사고( $r=.52, p<.001$ ),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사고( $r=.29,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즉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남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하위척도에서는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부분과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남학생이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r=.29,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보이며,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학생이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 전체( $r=.26, p<.05$ )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사고( $r=.26, p<.05$ )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자기결정에 대해 찬성도가 높은 여학생과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높은 여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중학교 2학년생은 남녀모두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행동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볼 수 없었다.

## 5.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와의 관련

한국과 일본의 아동이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했다(표 9).

(1) 초등학교 4학년생에서는 한일 양쪽에 있어서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2)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은 남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여학생의 경우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r=.35, p<.05$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남으로,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찬성할수록 아동이 자기결정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시사했다.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생은 남학생의 경우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전체)( $r=.38, p<.05$ ) 및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r=.45, p<.01$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전체 자기결정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찬성할수록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는 자녀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전체)( $r=.45, p<.01$ ) 및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r=.50, p<.01$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보호자가 여학생의 전체 자기결정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찬성할수록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국의 중학교 2학년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고 여학생의 경우는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 $r=.36, p<.05$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자기결정에 찬성할수록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중학교 2학년생에서는 남녀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1.

한국과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 학년별, 성별로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전체 및 하위척도득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여학생과 일본의 남녀학생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결정의 찬성도가 높아지거나 상급생의 자기결정 찬성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한국남학생의 경우는 학년별로 볼 때, 다소 특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전체,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초등학교4학년,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2학년에 걸쳐 V자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가장 낮은 결과였다. 즉, 한국의 여학생과 일본의 남녀학생은 자기결정에 대한 의사를 발달시켜가지만, 한국남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초등학교4학년생보다 생활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에

표 9. 한일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 사이의 상관계수

	한국						일본					
	초4		초6		중2		초4		초6		중2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사고전체	-.07	.19	.11	.18	.19	.24	-.04	-.23	.38*	.45**	-.02	.00
F1	.01	.16	.13	.35*	.15	.36*	.10	-.16	.45**	.50**	-.09	.05
F2	-.16	.04	.00	-.05	.09	.10	.01	-.17	.24	.31	-.02	-.10
F3	-.04	.20	.13	.07	.18	.15	.00	-.17	.23	.22	.04	.00

주: F1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

F2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

F3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

\* $p<.05$ , \*\* $p<.01$

더 적게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이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하고 아들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시기에는 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의 마지막 학년인 초등학교 6학년생 시기는 보호자가 더 관여하게 되며, 학생 자신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도 있어, 부모의 의견을 의식하는 것 같다.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보호자로부터의 지시나 간섭이 많으며, 아동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므로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일본의 남녀학생과 한국의 여학생의 경우는 발달단계에 따라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도 순조롭게 발달하는데 비해, 한국의 남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에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보호자를 중심으로, 이 시기의 아동의 자기결정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한·일간 비교에 있어서는 한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자기결정사고 특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남녀학생의<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과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였다.

또한, 일본학생이 한국학생 보다 특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은 중학교2학년 남녀학생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과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초등학교6학년 남녀학생 및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였다. 한

국학생은 일본보다 초등학교 4학년시기에 자기결정에 대해 강하게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초등학교6학년 시기와 중학교시기가 되면 일본의 학생이 더 자기결정에 강하게 찬성하는 경향이 보인다.

## 2.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 행동

양국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기결정행동이 많아지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스로 행동하도록 교육과 양육을 받은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남학생의 경우,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4학년생보다 낮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학년과 함께 증가하는 모순된 듯한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한국남학생의 그래프의 증가가 다른 그래프에 비해 미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보호자의 과간섭과 과보호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결정행동이 갑자기 감소하지는 않지만 중학교 2학년이 되어도 그 증가가 미미한 것을 볼 때, 사고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天貝 등(1996)의 연구에서도 자기결정의식이 행동보다 선행되어 조기에 출현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면서 이러한 자기결정의 의식, 욕구를 살리고 키우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생 때 과보호와 과간섭을 받은 경우, 보다 장기적으로 자기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 지에 대한 차후의 연구가 기대된다.

### 3.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 보호자의 사고

한국의 경우, 여학생의 보호자가 남학생의 보호자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전체) 및 하위척도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과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는, 초등학교4학년,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2학년에 걸쳐 V자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대한 보호자의 사고의 특성에 대해 잘 나타나있다. 즉 한국 학생의 보호자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이동하는 시기이며, 서서히 공부도 어려워지는 중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니 만큼, 과외학습과 학교생활에 있어 등교나 머리모양, 컴퓨터게임의 시간 등에 대해 관여하는 정도가 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는 한국의 보호자가 일본의 보호자 보다 더 많이 아동의 자기결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숙제 등의 공부를 집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집에서 몇 시간 정도 공부할 것인가’, ‘아침에 기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등교거부’와 ‘집에 틀어 박혀서 문밖출입을 안 하는 학생’, ‘학교중도퇴학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기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므로(이상란, 2003), 아침에 기상

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만큼 과외공부(학원공부)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가정에서의 공부시간에 대해 일본의 보호자가 더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4. 일본과 한국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자기결정행동과의 관련

한국의 남학생은 모든 학년에 있어서<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의 찬성도가 높은 아동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전체문항과 <과외학습과 장래 및 친구의 선택>에 있어서 찬성도가 높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2학년 남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학생에 있어서는 사고전체 문항과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찬성도가 높은 중학교2학년 여학생은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생의 경우,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달단계와 영역(하위척도)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일본보다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가 행동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남학생의 자기결정행동과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서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해 갖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자신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척도를 제외하고는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자기결정행동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일본의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결정에 대한 의식레벨에서의 찬성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레벨에서의 자기결정이 많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인의 특성으로 잘 알려진 혼네(내면,진실)와 다테마에(체면상 겉으로 나타내는 외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래 일본인은 타인과 일체감과 동일감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타인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土居, 1971). 즉 일본인의 특성상 자기결정과 같이 자기의 판단에 의거해서 행동하는 것은 타인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독단성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본인에게 있어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익숙지 않은 행동패턴이다(한성열 · 이누미야요시유키 · 최일호 · 윤덕환 · 서동효, 1998). 그러나 최근 일본사회에서는 자율성이나 자립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자기결정에 대한 의식적인 면(다테마에)에서는 앞서가고 있으나 실제 생활(혼네)에서는 아직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5. 한국과 일본 아동의 자기결정행동과 보호자의 사고와의 관련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일본의 초등학교 6학년 남녀학생에 있어서, 보호자가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찬성할수록 아동이 자기결정행동을 많이 행하는 것이 밝혀졌다.

논의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남학생의 자기결정행동과 관련을 갖는 요인으로서 <학교생활과 외모 및 가정생활의 선택>에 대해 갖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자신의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교6학년과 중학교 2학년생의 여학생의 자기결정행동과 관련있는 요인으로서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에 있어서 보호자가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한 찬성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여학생은 보호자가 자신의 자기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일 때 자기결정행동을 발달시키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남학생은 보호자가 자기결정행동을 지지한다고 해서(또는 지지하지 않는 경우라도), 무조건 보호자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자신의 자기결정 사고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분산구조분석과 같은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인과모형을 밝히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 6. 제한점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행동을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던 자기결정행동척도와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척도를 실시하여 한국과 일본의 양국 간의 아동과 보호자의 행동과 사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별로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자기결정에 관한 의식이 학생자신과 보호자에 있어 더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결정 행동을 많이 하며, 보호자 또한 여학생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더 자기결정행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보호자의 사고에 있어서 퇴보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으며, <가정에서의 학습과 생활태도 및 소비의 선택>요인이 아동의 자기결정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시사점을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일본의 동경내의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한국의 서울내의 공립 초등학교와 대구의 사립중학교의 학생 438명과 그들의 부모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행동에 대한 측정이 실제 행동의 측정이 아닌, 아동 자신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 생활에서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이는 본 연구자가 학교와 가정에서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자료 수집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후의 연구에서는 실험장면 또는 장면상정법(상상법)등을 이용하여 자기결정행동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사고와 행동의 발달은 생활연령의 영향과 함께 보호자의 태도와 소속된 사회의 자기결정에 대한 의식, 문화와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이후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아동의 자기결정에 대한 독립변인을 규명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아영·오순애 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 유형의 분류 제15권 제4호 97-119.

이종태·한만중·성기선·정옥년·배영찬 2002 가 21 서 울: 한국교육개발원

조현철 2000 자기결정적 학습동기의 학습결과 및 학습활동에 대한 관련 제 38권 제1호 95-121.

한성열·이누미야요시유키·최일호·윤덕환·서동효 1998 한국인, 서구인인가 일본인인가? 비현 실적 낙관성 (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한국심리학회 1998년도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531-545.

新井邦二郎 1998 子どもの自己決定の發達に関する研究 平成7年度~平成9年度 筑波: 科學研究費補助金 研究報告書.

天貝由美子·新井邦二郎·谷島弘仁·松尾直博·佐藤純·崔京姬 1996 子どもの自己決定の發達に関する研究<4>- 自己決定行動と自己決定意識の關係とその發達—日本教育心理學會 第8回總會論文集, 87.

稻村博 1991 アパシーとは何か. 教育心理 39 90-95  
石川勤·藤原喜悅 1968 兒童·生徒自主性診斷検査 (DTI) 小學校5年生~中學校3年生向, 東京: 金子書房.

- 佐藤純・新井邦二郎・谷島弘仁・松尾直博・天貝由美子・崔京姬 1996 子どもの自己決定の發達に関する研究<3>— 自己決定意識の尺度の作成— 日本教育心理學會 第8回總會論文集, 86.
- 土居健郎 1971 「甘え」の構造 東京: 弘文堂.
- 谷島弘仁・新井邦二郎・松尾直博・天貝由美子・佐藤純・崔京姬 1996 子どもの自己決定の發達に関する研究<2>— 自己決定意識の尺度の作成— 日本教育心理學會 第8回總會論文集, 85.
- 山地弘起 1988 動機づけにおける自己決定性の検討 東京大學教育學部紀要, 第28卷, 317-325.
- Bernes, E. 1964 *Games people play*. NY: Grove Press.
- DeCharm, R. 1968 *Personal causation*. NY: Academic Press.
- DeCharm, R.(佐伯祥譯) 1976(1980) やる氣を育てる教室, 東京: 金子書房.
- DeCharm, R. 1984 *Motivation enhancement in Educational settings*. In R. Ames C. Ames(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Vol. 1 Academic Press.
- Deci, E. L. (安藤延男・石田梅男譯) 1975(1980) 内發的動機づけ. 東京: 誠信書房.
- Deci, E. L. (石田梅男譯) 1980(1985) 自己決定の心理學. 東京: 誠信書房.
- Deci, E. L.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on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Comparative study on child self-determination in Korea and Japan

Kyunghee Choi  
Uiduk Univ.

Kuninjiro Arai  
Tsukuba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ildren self-determination in Korea and Japan to set critical guidelines for future research on this subject.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890 prim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Japan:438, Korea:452) and their parents. The result as follows: (a) Self-determination consciousness scores were higher the students and parents in Japan than them in Korea, (b)Self-determination behavior scores were higher the girl students and her parents than the boy students and his parents, (c) Self-determination consciousness scores were lower the boys in sixth grade than them in fourth grade in Korea.

Finally it is suggested the factor of Self- determination of <studying, attitude of life and consumption at home> influence Self- determination behavior.

*Keywords: child, Self-determination, Korea, Japan*